

제목: "마리아의 찬양"

말씀: 누가복음 1장 46-56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오신 하나님께 예수님
메세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고 그 찬양은 그의
고백이 됩니다. 마리아의 고백의 찬양은 우리 모두의 찬양입니다.
대림절을 맞으며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나의 _____을 돌보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48절)
2. 다음 _____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50절)
3. 세계 모든 _____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52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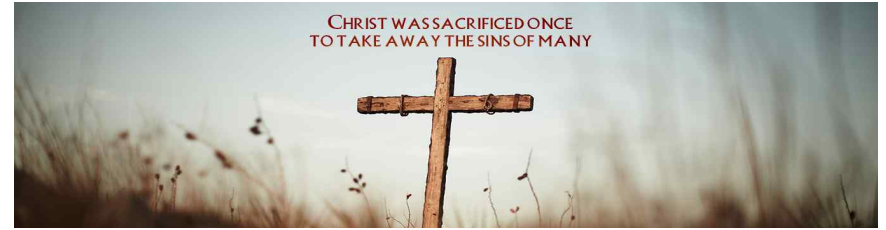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1장 46-56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1: 46-56 신약 87 페이지 President
- 말씀 "마리아의 찬양"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다시 한 번 세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주중에 일을 하면서 각 나라사람들을 만났다. 하도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실은 내 안에 문화 충격이 있었다. 지난 40여 년 간 한국 사람들만 만나는 사역을 하다가 일터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만 너무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늦게 남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런 나라에서 살았지만 목회를 하다가 보니 만나는 사람들 전부 한국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것 말고는 친구들 95%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문화 충격을 받으며 많은 생각을 한다. 그리고 결론은 내가 그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다른 삶을 살아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한인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 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역을 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민의 이해 의식이 너무나도 짧고 달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을 지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많은 갈등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새롭게 미국을 보고 이민 생활을 보며 그 안에서 씨름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남을 보게 된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부분은 더욱 요구하며 이끌어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어떠한 것들은 나의 기대를 과감하게 버리고 깊은 이해로 성도들을 대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갖게 되었다. 그러니 만일 내가 교회 사무실에서 평생 사역을 마무리했다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성도들의 삶과 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면서 “내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 했을 것을 생각하니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제라도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자부심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고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작은 목사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라도 나의 세상관을 다시 써내려가려고 한다. 오히려 일터에서 싸움을 하듯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교학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도 된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일하며 일터에서 선교에 대한 바른 시각과 열망을 얻어서 세계 끝까지 가며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장소를 빌려서 예배하는 우리교회지만 미국교회에서 나에게 사용하라고 사무실을 하나 주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주중에 그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지키는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며 선교학을 배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즐겨 앉은 교회 건물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던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 오직 때를 따라서 움직이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뿐이다. 이제 우리도 일어날 때이다. 일어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서의 생활을 믿음으로 다시 써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2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대림절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6. 12월 계획

12월 24일(토) 정기당회 오전 8시 이석순 장로님 덕

12월 25일(주) 성탄 주일 및 성탄절 예배

1월 1일(주) 신년예배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